

 금융위원회	<div> <div>  </div> <div>  </div> </div>			
	보도	2021.6.1.(화) 조간	배포	2021.5.31.(월)

책 임 자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김 성 조(02-2100-2860)	담 당 자	박 성 빈 사무관(02-2100-2864)
	금융감독원 포용금융실장 김 학 문(02-3145-8410)		유 상 범 팀장(02-3145-8409)
	한국신용정보원 상무 김 응 수(02-3705-5806)		이 철 흠 부장(02-3705-5938)

제 목 : 기술력 높은 중소기업이 코로나19 국면에도 자금애로를 겪지 않도록 전(全)은행권이 지속 지원하겠습니다.

- '20년 하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 및 은행 자체 평가 역량 심사 결과 발표

◆ '20년 하반기 은행권 **기술금융 실적평가**(TECH 평가) 결과, 기업은행·하나은행(대형), 경남은행·부산은행(소형)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

◆ **자체 기술금융평가 역량 심사*** 결과 1개 은행이 '레벨4'에 신규 진입하여 총 9개 은행이 은행 자체 기술평가 체계를 완비

※ 은행별 기술평가 역량 및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외부 기술신용평가사(TCB사)가 아닌, 은행 자체 기술평가로 기술금융 공급이 가능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

1 기술금융 추진 경과

- '14.1월에 도입된 기술금융은 기술력·혁신성 심사를 통해 미래 성장성 높은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주요 경로가 되었습니다.

○ 기술금융대출은 코로나19 국면에도 지속 확대*되어 대출잔액은 266.9조원(중소기업 대출의 31.9%) 수준입니다('20.12월말 기준).

* 기술신용대출잔액(조원) : ('18년) 163.8 → ('19년) 205.5 → ('20년) 266.9
- 쏠은행권이 기술금융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이제 기술금융은 새로운 여신관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,

○ 기술 중심 중소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미리 대비하여 투자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.

- 삼성전자 협력사 A社は **창업기업 특성상 일반 중기 대출이 어려웠으나**, OO은행은 A社の **우수한 능동형 광섬유 케이블 기술력** 등에 대해 **기술신용대출 5억원, IP담보대출 5억원, 동산담보대출 3억원**과 함께 **신보 보증연계투자 10억원까지 패키지로 지원함**
- 동사는 지원받은 자금을 활용하여 필수원자재를 확보하고 제조설비를 확충하여 **능동형 광섬유 케이블 인터페이스 제품의 상용화 및 시장 진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**

○ 특히 최근에는 **중요성이 높아지는 지식재산권(IP)·동산** 등에 대한 **혁신금융 공급채널로 영역을 적극 확대***하고 있습니다.

* IP·동산담보 대출 실적(억원) : ('19.下) 6,345 → ('20.上) 8,729 → ('20.下) 10,039

※ TECH평가 시에도 IP·동산담보대출 실적을 포함하여 평가 중

- **이차전지 생산용 장비 제조기업 B社**는 해외수출 자금의 입금 지연으로 운전자금이 부족하여 기업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, △△은행에서 **기술신용평가 T3등급**을 받고, **'이차전지용 셀스택 제조장치' 특허**에 대해 **40억원의 가치평가**를 인정받음
- 동사는 이를 바탕으로 **신용대출 40억원, IP담보 대출 20억원**을 지원받아 **필수 원자재를 확보하고 제품 양산을 위한 제조설비를 확충하여 전년대비 매출액이 185% 증가하는 등 사업을 적극 확장하였음**

2 2020년 하반기 은행 TECH 평가 결과

< TECH 평가 개요 >

- (내용) 반기별로 은행권의 ①**기술금융 공급실적** 및 ②**지원역량** 등을 평가
- (평가지표) **정량지표**(공급규모 등, 88점) 및 **정성지표**(인력·조직 등 지원역량, 12점)
- (평가체계) 정량평가(금감원), 정성평가(신정원) → 금융연 검증 → TECH평가위원회 심사
- (결과활용) 평가결과에 따라 **신·기보 출연료**를 차등적용

□ 은행권의 **기술·혁신성 중심 자금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** 위하여 **기술금융 실적을 평가***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.

* (정량지표) 기술금융 ①**공급규모**, ②**기술대출기업지원**, ③**기술기반투자확대** 등
(정성지표) 기술금융 인력·조직·리스크관리·시스템 등

□ '20년도 하반기 실적 평가 결과, **대형은행** 그룹에서는 **기업은행과 하나은행**이, **소형은행** 그룹에서는 **경남은행과 부산은행**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.

< 연도별 TECH 평가 결과 >

구 분		'14.하	'15.상	'15.하	'16.상	'16.하	'17.상	'17.하	'18.상	'18.하	'19.상	'19.하	'20.상	'20.하
대 형	1위	신한	국민	신한	기업	기업	하나	기업	하나	신한	하나	하나	신한	기업
	2위	우리	신한	하나	신한	신한	신한	신한	기업	국민	기업	국민	하나	하나
소 형	1위	부산	부산	부산	부산	경남	대구	경남	부산	대구	대구	대구	경남	경남
	2위	대구	대구	경남	경남	부산	경남	대구	대구	경남	수협	광주	부산	부산

* 기업은행은 '16년부터 대형은행 그룹으로 편입

- 기업은행은 지식재산권(IP) 등 다양한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여 혁신성 높은 중소기업에의 자금공급을 확대*하였고,
* 기술신용대출 평가액(조원, 누적) : ('19.下) 39.3 → ('20.上) 46.2 → ('20.下) 52.4
IP담보대출 실적(억원) : ('19.下) 427 → ('20.上) 769 → ('20.下) 2,126
- 경남은행은 기술평가 기반 투자*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.
* 투자 순증액(증가율) : ('20.上) 12.2억원(+10.0%) → ('20.下) 84.5억원(+63.0%)

3 은행 자체 기술금융 평가 역량 심사 결과

- TECH평가와 함께, 별도로 신청한 10개 은행에 대해 자체 기술신용평가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심사*하였습니다.
* 심사 결과 레벨이 상향될수록 자체평가에 기반한 기술신용대출 가능 금액*이 증가
※ (Lv1) 예비실시 → (Lv2) 직전반기 기술금융 대출의 20% 이내 → (Lv3) 50% 이내 → (Lv4) 제한 없음
- 심사결과 레벨4에 1개 은행(농협)이 신규로 진입하여, 총 9개 은행*의 자체 기술신용평가 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.
* 레벨4 : (대형) 신한, 우리, 하나, 기업, 국민, 농협 (소형) 부산, 대구 (기타) 산업
- 레벨4 은행들은 별도 제한 없이 은행 자체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금융을 공급할 수 있어*, 앞으로 기술금융 추진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* 자체평가 기술금융 공급 제한 : (레벨3) 직전반기 기술금융 대출의 50% 이내 → (레벨4) 제한없음

4 향후 추진계획

- 올해에는 기술금융 체계를 세부적으로 정비하여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지속 지원할 예정입니다.
- 은행-TCB사 간 기술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준화된 기술평가모형을 마련*하고,
* '21.6월부터 시스템 구축 등 표준모형 도입 준비기간을 거쳐 '22.1월부터 시행
- 은행 자체 기술평가 역량이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술평가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쳐 여신심사에 내재화 될 수 있는 통합여신모형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.

- 또한 은행권 의견을 수렴하여 TECH평가시 IP·동산담보 등 혁신금융 요소를 강화하고, 은행별 노력도 평가를 추가 반영하는 등 평가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('21.下)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